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May/June 2010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This document consists of **8** printed pages.



Part 1

Text 1 을 주의깊게 읽고 Question 1 에 모두 답하십시오.

아래 글은 문순태의 단편 소설 <징소리>의 일부분입니다. '방울재'라는 마을에 댐이 건설되자 칠복이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곧 대도시의 생활에 지칩니다. 아내의 외도까지 목격한 끝에 온전한 정신을 놓은 칠복은 고향을 찾아와 징을 두들기며 댐 건설 후 밀려드는 낚시꾼을 쫓아내곤 합니다.

"방울재가 없어졌지라우. 몽땅 물에 쟁겨 뿌렸어유. 남은 것이라고는 저 뒷골 감나무뿐인갑네유."

봉구는 황새처럼 목을 길게 뽑아 그들이 서 있는 발부리 아래, 찰랑찰랑 허리가 물에 잠긴 채 빨갳게 익어가고 있는 접시감나무를 가리켰다.

"그러면 우리가 낚시질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방울재라는 마을이었던 말이우?" 5

나이가 지긋하고 턱끝이 도끼날처럼 날카한 낚시꾼이 흥미가 있다는 말투로 물었다.

"그렇구먼유. 우리덜 지붕 위에다 낚시를 던지신 거나 마찬가지지유."

"지붕 위에서 낚시질이라!"

빨간 모자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선생님들, 이 사람은 우리가 데려갈랍니다요." 10

"다시는 여기 못 오게들 허쇼."

"염려 놓으십쇼. 다리 모갱이를 작쩍 분질러 놓겠으니까유."

방울재 사람들은 왈살스럽게 칠복이의 어깻죽지를 잡아 일으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들린 사람처럼 경중대며 징을 두들기던 그 기세는 어디로 숨어 버렸는지, 그는 징을 가슴에 소중하게 두 팔로 꼭 껴안은 채 겁먹은 얼굴로 큰 눈을 뒤룩거렸다. 15

"미친 사람은 묶어 뒤야 합니다. 에잇 재수 없어!"

낚시꾼들은 방울재 사람들이 칠복이를 끌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다짐을 받고 나서 다시 낚시터에 앉았다.

"좀 올렸습니까요?" 20

칠복이를 끌고 내려간 줄 알았던 뻘뻘 마른 봉구가 빨간 모자 옆에 엉거주춤 무릎을 세워 앉으며 물었다. 그는 기왕 예까지 올라온 김에 매운탕 손님 하나라도 미리 잡아 두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슬그머니 뒤에 처진 거였다.

"미친놈이 나타나서 휘방을 놓는 바람에 김 팍 새버렸소."

"엠편한다고 미쳐 갖고 없어져 뽀진 고향에는 꼬덕꼬덕 돌아올 꺼유!" 25

"고향엔 찾아온 걸 보니 미친 사람인 아닌 게로군요."

"오락가락허유."

봉구는 어둑어둑 때가 묻은 흰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새마을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잠시 고개를 돌려 주막으로 끌려 내려가는 칠복이의 뒷모습을 보았다. 봉구와 칠복이는 방울재 안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마을이 없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방울재에서 앞뒷집에 나란히 처마 맞대고 살면서 너나 나나 친동기간처럼 가까웠었다. 봉구는 부자였고 칠복이는 가난했지만 봉구는 칠복이 앞에서 조금도 있는 티를 보이지 않았다. 30

"저 미친놈이 또 징을 치고 지랄해 싸면 어디 낚시질을 하겠소?"
"아닙니다유.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십쇼. 앞으로 물가에 얼씬 못 하게 할 꺼잉께유. 저놈이 날마다 횡방을 치면 낚시꾼들이 안 올 게고, 그러든 우린 굶어죽을 건디 그대로 내버려두겠어유?" 35

봉구는 입에서 담배를 빼들고 사뭇 흥분한 어조로 다급하게 말했다.

"왜 미쳤답니까?"
낚시꾼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40

"댜 때문이지라우. 고향을 잃고 도회지로 나갔다가 마누라꺼정 도둑맞고 오장이 희까닥 뒤집혔다고 허드만유."

"마누라를 도둑맞아요?"

빨간 모자는 조금씩 간담거리는 찌를 향해 시선을 팽팽하게 던지며 물었다.
"가난하고 못난 촌놈 마다하고 잘난 도회짓놈하고 배가 맞은 거지유. 45

어이쿠 물었네요. 감 잃은 되느만유."

빨간 모자가 아이들 손바닥만한 봉어를 낚아 올리자, 봉구는 빠른 솜씨로 낚시줄을 잡아 낚시에서 봉어를 빼 구덕에 넣고 입감까지 끼워 주었다.

"그래서 미친 게로군!"

"고향 잃고 마누라꺼정 뺏겼으니 안 미치게 생겼남유?" 50

"미인이었소?"

낚시꾼은 흥미 있다는 듯 피시시 웃음을 머금어 날리며 물었다.

"촌에 미인이 있간디유? 새끼 하나만 낳으면 칠푸덕 엉덩판만 커지고 무신 매력이 있어야지유. 그래도 그 칠복이 여편네는 얼굴도 반반하고 도회지 바람을 목어서 촌티는 벗었지라우. 칠복이헌티는 좀 과헌 여지지유." 55

"마누라 뺏기고 원, 챔피언해서 지랄한다고 고향엔 와요?"

"그러다마다유. 하지만, 오죽했으면 고향에 뭐 볼 거 있다고 다시 왔겠남유? 결국 우리덜도 도회지에 나갔다가 밭을 못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르케 낚시꾼들 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요, 으디 갈 데가 있어야지유. 굶어죽어도 고향 선산에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 땀시....." 60

봉구는 푸우 한숨 섞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멀고 회한에 가득한 눈으로 산자락 모퉁이 옛날 창평 고씨(昌平 高氏) 제각이 있던, 편편한 곳에 준비하게 늘어선 매운탕집 주막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선산을 버리고는

죽어도 방울재를 떠나지 않겠다면서 처음부터 집을 뜯어 옮기고 그대로 눌러앉은
 박팔만이네를 제하고, 다섯 집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열한 집으로 늘어났다. 65

새로 생긴 방울재 매운탕집들 앞으로는 아카시아 숲이 휘윽하게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있고, 아카시아 숲 너머로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좁장한 신작로가
 뻗쳐 들어오고, 그 길을 따라 낚시꾼들이 타고 온 자가용차들이 집 둘레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햇빛을 쪼개어 날렸다. 봉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어쭙잖게만 보였다. 70

말이 보상금이지, 보상가격을 책정해 놓고도 일이 년 뒤에야 지불을 받고 보니,
 이미 인근 농토 값은 몇 배로 뛰어올라 대토(代土) 잡기에 어려웠고, 도회지로
 나가서 살자 해도 전세방을 얻고 나면 자전거 하나 사기도 힘든지라, 아무 짓도 못
 하고 솔래솔래 콧감 꼬치 빼먹듯 하다가는 두 손바닥 탈탈 털고 영락없이 알거지가
 되고 만 집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봉구 그 자신도 보상금 받아 가지고 75

읍에 나가서 버스정류장 옆에 가게를 얻어 쌀집을 냈으나 어찌 된 셈인지 남는
 것은 없고 옴니암니 본전만 까먹게 되어 전셋돈이나마 가까스로 건져 다시
 방울재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지붕 위에서 낚시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빨간 모자 낚시꾼은 뚜벅뚜벅 곧잘 말을 걸어왔다. 80

"사람들꺼정 한꺼번에 잼겨 뽀 거이 더 마음 아프구먼유."
 "누가 빠져 죽었나요?"
 "죽은 거나 매한가지라우. 수십 년 동안 얼굴 맞대고 정 붙이고 살아온 방울재
 사람들을 시방 어디에 가서 찾을 겁니까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몇 집 안 되지라우."
 "예끼 여보슈, 난 또 무슨 소리라구!" 85

"선생님들은 우리 속 몰라유."
 "땀이 원망스럽겠군요."
 "으째서유?"
 "고향을 삼켜 버렸으니까요."
 "위디가유.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러키 앞뒤 짝 맥힌
 멍충이들이랑가유? 땀이 생겨서 많은 농민들이 가뭄 모르고 농사 잘 짓는 거이
 을매나 잘헌 일인가유?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유."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래도 고향이 없어져 뿔고 정든 사람들이 뿔뿔이 풍비박산되야 뽀졌는디
 으찌……." 95

"딱하게 됐습니다."
 "그라니께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여라우. 우리헌티 땅이 있소, 기술이 있소?"
 빨간 모자가 대꾸를 해주지 않자, 봉구는 고개를 들어 다시 매운탕 집들 위로
 내리뻗은 고속도로를 바라보았다. 자동차들이 바람처럼 썩썩 내달았다.

- 1 Text 1 을 읽고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을 쓸 때에는 가능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문장으로 쓰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 구사력이나 정확성에 따라 5 점이 더해집니다. 총점은 20+5=25 점입니다.)

- (a) line 8 에서 ‘지붕 위에서 낚시질’이란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쓰십시오. [1]
- (b) line 13–16 에서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신의 문장으로 설명하십시오. [2]
- (c) line 21–23 에서 봉구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고 뒤쳐진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1]
- (d) line 28–29 에서 칠복이가 ‘주막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봉구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2]
- (e) line 41–42 에서 ‘오장이 희까닥 뒤집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쓰십시오. [1]
- (f) line 39–50 에서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 미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십시오. [2]
- (g) line 61 에서 봉구가 ‘푸우 한숨 섞인 담배 연기’를 내뿜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3]
- (h) line 74 에서 ‘솔레솔레 콧감꼬치 빼먹듯 하다’는 무슨 뜻인지 쓰십시오. [1]
- (i) line 71–78 에서 봉구는 왜 고향에 다시 돌아와 머물기로 했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십시오. [3]
- (j) line 81 에서 봉구가 ‘한꺼번에 잤겨 뿐 거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쓰십시오. [2]
- (k) line 97 에서 ‘뿌리없는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십시오. [2]

Part 2

Text 2 를 주의깊게 읽고 Question 2 에 답하십시오.

Text 2

다음은 한국의 강원도 춘천 지역에 소양강 댐이 건설된 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환경적, 사회적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 최승업의 연구 논문 <댐 건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중 일부입니다.

수몰 이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아마도 그 어떤 댐의 역기능보다도 중요한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전무했다. 이 때문에 당시 녀너지 못했던 보상비를 받고 완전히 낯선 곳에 옮겨져 새로운 삶을 영위해야만 했던 이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더욱 심각했던 것은 산촌, 농촌에서만 살아온 이주민들은 기능적인 기술분야와는 무관하게 살아온 관계로 이들이 새로운 이주지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업종은 대부분 단순노동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새로운 이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도시 영세생활보호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들 이주민들 중에는 인근 지역에서 대체농지를 구입하여 종전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인근 지역은 이미 이주민들의 대거 이동으로 인해 지가 및 임차료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진 뒤였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청소년 이주민들 중에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탈선이 크게 늘게 되었다는 사례도 보고 된 바가 있다.

<중략>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향후 지역개발 등과 관련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크게 줄어들음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제한, 둔화되는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특히 소양강댐의 경우 댐 상류지역은 댐이 건설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소양강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즉 수몰만 되지 않았더라면 지자체 입장에서 하천(소양강) 주변을 관광시설의 입지 및 기타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경우 지가의 상승과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세가 크게 증가했었을 것이나, 지금은 모두 수몰되고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쓸모 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지역 벽·오지마을의 개발비용, 지방도로 개설비용, 선착장 건설비용 등과 관련하여 댐 건설 이후 지방비의 부담이 오히려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중략>

최근 산업화에 따른 대기 중 CO₂ 농도 증가와 오존층의 파괴 등에 의한 지구기상의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장기적, 거시적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댐건설과 같은 지형의 변화에 의한 지역 기상변화나 그에 따른 지역농업 또는 농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소양강댐 건설 이후 안개의 증가 등 주변지역의 기상조건이 악화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주변지역의 농민들도 댐 건설 이후 작물의 생육불량, 병해충 다발,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 다각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반드시 댐과 관련된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에 안개가 작물의 광합성작용 및 성장,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라던지 병충해 발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살펴보면 댐건설로 인한 안개 발생이 농작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종류와 규모 등도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안개의 발생은 안개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2 차적인 문제도 일으킨다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즉 안개가 발생하게 되면 대기 내에 떠다니고 있었던 미세먼지, 중금속, 산성염 등을 머금게 되고 이것이 사람의 호흡기나 식물, 각종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성안개가 산업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합금강 등 산업구조물에 PH 4 정도의 산성안개수를 한달 가량 주기적으로 살포했을 때 한계강도가 평상시에 비해 무려 80% 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산성안개가 강구조물의 부식과 균열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

<중략>

소양호에 유입하는 주요 하천은 내린천, 인북천, 북천의 세 하천인데 이들 하천은 85년 수질조사를 실시한 이래 연도별 수질이 BOD 0.63-1.05mg/L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모두 I등급 이하의 청정수질을 나타내고 있다(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2000). 하지만 이러한 청정수질이 소양호에 유입된 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정부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댐의 건설을 통해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댐의 건설은 하천의 유속(流速)을 떨어뜨리고 물을 정체시킴으로써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저하시키고, 또한 각종 오염물질들은 호수에 침하시킴으로써 수질오염현상이 자연 하천 상태에서보다 악화된다는 것이다.

<중략>

소양호는 수심이 깊고 주변이 가파르며, 연간 수위변동이 30m에 이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어류의 군집에 영향을 준다. 즉 수심이 깊고 가파르다는 것은 호수변에 얕은 연안대가 발달할 수 없는 여건이 됨을 의미하며, 수위변동이 크다는 점과 함께 작용하여 소양호에는 호수내에 수초대가 전혀 발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소양호에는 수초가 사는 연안대가 형성되지 못하므로 수초에 은신하는 어류보다는 중층을 유영하는 어류에게 유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양호의 어류는 예전 소양강의 계류형 어류가 이미 호소형 어류로 대체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인위적인 이식과 가두리 양식장에서의 방류 영향을 크게 받아 외래어종(향어, 블루길, 무지개송어 등)의 어류가 주종을 이룰 정도로 많아진 상태이다. 특히 블루길과 같은 외래어종은 육식성과 포식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어족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80-90년대 소양호에서 심하게 발생되었던 부영양화 현상은 물고기를 비롯한 수중동물의 다양성을 크게 해치게 되었는데 소양호 또한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영양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호수에서는 호수바닥에서 주로 살고 있는 저서동물(지렁이류, 조개류, 곤충의 유생 등)이 살지 못하며, 또한 부영양화될수록 퇴적물의 산소부족으로 저산소에 견디는 물고기는 살지 못하고 산소부족에 견디는 종류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호수내 생물의 총량은 증대될지 모르나 수중생태계의 다양성은 크게 훼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양호에는 이미 열목어, 산천어, 쉬리 등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다만 호수성 어종인 붕어, 잉어 및 일부 외래어종뿐일 정도로 어종이 매우 단순해졌다.

2 Text 1 과 Text 2 를 잘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댐 건설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측면의 영향과 환경적 측면의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Text 1 과 Text 2 에서 찾아 자신의 문장으로 설명하십시오. [15]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 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 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 점, 언어의 정확성에 5 점)

Copyright Acknowledgements:

Question 1 © Mun Sun Tae; *Jing-so-ri*; 1998; www.seelotus.com.
Question 2 © Choi Seung Up; *Dam gunseol*; <http://gw.codil.or.kr>; 2001.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